

‘가정의달’인데... 지갑 열기 무섭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선물·외식비 “어쩌나”
외식·장난감 물가 1년 전보다 각 8.2%·3.7% ↑
“가족 나들이하며 밥 먹고 선물 사는데 부담돼”

제주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장모(43)씨 부부는 5일 어린이날 갑작스런 비 예보에 아이들과 실내에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많은 인파도 우려되지만 무엇보다 이날 나들이에 따른 지출 비용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테마파크나 키즈카페 이용권 가격은 1인당 2-3만원대이고 점심식사에 선물까지 다하려면 어린이날 4명이 하루 놀러가는데 드는 비용은 30만원 넘게 들 것 같다”며 “어버이날엔 부

모님과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려야 하고 돌아볼 경조사도 많고, 어느 날보다도 5월 가정의달에 가게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고물가 속에 가정의달 5월이 되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주요 기념일에 선물과 외식으로 집집마다 체감하는 가게 부담이 커지면서 한숨이 깊어지는 도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봄철 결혼 성수기까지 맞물리면서 축의금 지출도 커져 얹어지는 주머니 사정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적잖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4%까지 올랐던 제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3.2%까지 둔화됐지만 외식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내외 외식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2%로 올랐고, 전국 평균(7.6%)보다 0.6%p 높았다.

외식비와 함께 선물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 어린이날 선물로 많이 사는 장난감 가격 등이 포함된 지난해 오락·문화 부문 물가도 1년 전보다 3.7% 뛰었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장난감 물가는 3.0% 올랐다. 마케팅 전문기업 롯데멤버스(20~60대)을 대상으로 자체 리서치 플랫폼을 통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올해 어린이날 선물 평균 비용은 12만4800원, 어버이날 선물 평균 비용은 33만6000원에 달했다.

여기에 이달 봄철 결혼 성수기가

겹친데다 물가 상승으로 예전보다 오른 축의금 문화에 부담을 갖는 이들도 있다. 보통 봄철 결혼 시즌을 3월~5월로 보는데, 올해는 윤달(양력 3월 22~4월 19일)이 끼어서 이를 피해 결혼식 예약을 잡다보니 이달에 봄 결혼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인크루트가 지난 3월 대학생·구직자·직장인 등 1177명을 대상으로 결혼식 축의금 적정 액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같은 팀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보는 직장 동료, 가끔 연락하는 친구나 동호회 일원 등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에게는 5만원, 사적으로 자주 소통하는 직장 동료나 자주 연락하고 만남이 잦은 친구 또는 지인 등 친한 사이에게는 10만원이 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박소정기자



교래곶자왓 생태체험관 ‘인기몰이’

초중고 학생 대상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 운영

제주곶자왓공유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교래곶자왓 생태체험관이 제주 곶자왓의 가치를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3일 제주곶자왓공유화재단에 따르면 교래곶자왓 생태체험관에선 지난 4월 5일부터 제주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곶자왓생태체험 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을 시작으로 도내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곶자왓을 가까이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 4월에만 도내 3개 초등학교, 학생 80여 명이 방문했다. 같은 기간 찾은 도내 유치원생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200

명가량이다.

교래곶자왓 생태체험관에선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곶자왓을 보다가 깊이 만날 수 있다. 고기원 지질학 박사, 송관필 식물학 박사 등은 화산 폭발로 형성된 곶자왓의 특징적인 모습부터 그 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곶자왓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3일 토평초 3학년과 이곳을 찾은 김민아 교사는 “교래곶자왓에서 직접 설명을 들으며 그 속에서 자라는 식물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엘리스처럼 모험을’... 예비교사가 준비한 어린이날 축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38대 그린학생회가 명작동화를 떠올리게 하는 ‘토키를 따라나선 엘리스의 대모험’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행사는 어린이날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와 12개 전공, 동아리가 준비한 놀이와 만들기, 체험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전공별로는 ‘재미있는 말놀이 세계’를 비롯해 ‘달리는 동물 만들기’, ‘영화 감상하기’, ‘코딩과 AI랑 같이 놀아요!’ 등의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한다.

학생회는 ‘우당탕탕 엘리스의 모험’과 ‘물약 만들기’, ‘보물찾기’

등으로 재미를 더하고 동아리는 댄스 오케스트라, 밴드 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더한다.

당일 비가 와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오전 시에는 장소를 옮겨 대학 건물 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무꽃이 이렇게 이뻐나” 3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한 농경지에 무꽃이 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전세사기 ‘집단피해’는 없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개별 대납 사례만 올 1~3월 16건·30억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집단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에선 집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제주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3건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금액은 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엔 보증사고 4건·피해액 7억9000만원, 지난 1월엔 보증사고 9건에 14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단 피해’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과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

교통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전세 피해 대응 협력체계가 마련돼 있다.

긴급 주거지원 추진에 따라 6개월 간(최장 2년)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5호가 확보돼 있으며, 피해 확대 시 추가 확보 계획도 마련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또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책임지는 제도다. 강다혜기자

교육청, 찾아가는 동물 사랑 교육

제주도교육청이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동물 사랑 교육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올 한 해 생명 존중 인식 제고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인성 함양을 위해 실천적 인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물 사랑 교육은 초등학교 희망

학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동물 학대 예방, 동물 사랑 교육이 가능한 도내 유관 단체 강사가 학급을 방문해 학년 맞춤형으로 유기동물의 실태와 문제점, 동물의 생활 방식과 감정 상태 이해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 방법, 동물 존중을 통한 생명 사랑, 생명의 소중함, 반려동물과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벌인다. 진선희기자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축하합니다

60th MG 제주서부새마을금고

따뜻한 금고, 든든한 금고, 행복을 드리는 금고

지역주민의 사랑으로 성장해 온 제주서부새마을금고는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주민 환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매년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역복지 환원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2023년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본점 : 제주시 우정로 32(외도일동) T.064) 742-2600
한라대학로지점 : 제주시 한라대학로 89(노형동) T.064) 743-2500